

## [묵상과 영적성숙]

### ③ 묵상과 영적 성장

강준민 목사 / 1998 / 페이지수: 2

말씀 묵상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다(롬 8:29). 다시 말해서 영성이 깊어 간다고도 할 수 있다. '영성이 깊다'는 말은 예수님을 아주 많이 닮아 있는 사람들에게나 쓰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뜨거운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과는 다른 표현이다. 신앙의 체험은 중요하다. 신앙의 확신을 더해 줄 수 있고, 신앙의 맛을 더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체험이 신앙 성장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영성이 깊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넉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영적인 성장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예수'를 닮아감

말씀은 양식이다. 말씀은 떡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마 4:4)고 말씀하셨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말씀이다(요 6:63). 사람을 세우는 것도 말씀이다(행 20:32).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도 말씀이다. 말씀을 떠나서는 영적 성장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말씀 묵상을 통한 영적 성장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다. 남이 먹여 주는 신령한 젖을 받아먹는 단계이다(벧전 2:2).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히 5:13). 그 다음은 스스로 말씀을 먹는 단계이다. 어린아이 때는 부드러운 음식만 좋아하지만 이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 딱딱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성숙한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도 사모하게 된다(딤후 3:16).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은 부족함이 없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딤후 3:17).

#### 영적 분별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분별력이다. 그는 이제 지각을 사용하게 된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 5:14).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말씀 묵상이다. 깊은 묵상 가운데 생각이 깊어지고, 지각을 연단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고후 10:5).

묵상은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먹여 주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이다. 스스로 성장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자기의 문제를 극복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말씀 묵상의 깊이는 깊어진다. 자신 스스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그의 묵상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사 50:4).

## 자유케 됨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깨우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말씀이신 진리밖에 없다(요 8:32).

묵상을 하는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 암송에서 묵상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이다. 존재 자체가 넉넉해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인간의 행복은 실로 성장에 있는 것이다.

성장이란 자기를 넘어서는 것.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인생이란 맛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맛있는 인생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했던 헬렌 켈러의 말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 묵상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신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라.

\* 출처 : 도서출판 두란노